출제경향 및 해설 (이종하세무사 2008년 7월 28일) 봉책형

안녕하세요. 한교고시학원에서 7급회계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하세무사입니다. 이번 2008년 7월 26일 실시된 국가직 7급 회계학의 경우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공부하신 수험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도 있습니다. 우선 각 문항별로 출제자가 묻고자 했던 내용과 난이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난이도 상중하 표시됨)

문 항 번호	난 이 도	질문요지
1	하	미지급급여 누락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2	중	전기말재고 과대평가시 당해연도 매출원가와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3	중	수정전 당기순이익에서 수정사상 가감후 수정후 당기순이익구하기
4	중	유형자산(토지) 취득원가 구하기
5	하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6	하	사채 (만기까지 총 이자비용 산출)
7	하	사채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유효이자율상각표관련 항목)
8	상	회계추정의 변경시 감가상각비 구하기
9	상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과 평가손익등
10	중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11	중	대손충당금 (대손발생액)
12	하	현금흐름표 (영업현금흐름구하기)
13	하	은행계정조정표
14	상	재무비율분석
15	중	상품권회계처리
16	중	중간재무제표
17	하	무형자산회계처리 (개발비)
18	상	주당순이익 (무상증자관련)
19	상	전환사채
20	하	교환 (처분손익)

앞으로의 수험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7급 시험의 경우 절대로 단순암기형 문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수험생들 중에는 과거 기출문제 (2006년 이전 문제 ,즉 문제가 공개되기 이전을 의미함)등을 보면서 보자마자 답이 보이는 아주 초급적인 문제가 어느정도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7급 세무직에 합격을 원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출제경향에 맞는 선별된 문제를 풀되 풀이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양적인 공부에서 질적인 공부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능동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출제위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평상시 문제를 푼다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15분내에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출제된 복구충당부채(5번), 상품권 회계처리(15번) 및 교환손익(20번)과 같은 문제는 이미 충분히 예견이 되었던 문제이며, 평상시 출제자가 원하는 핵심포인트 (이것이 문제에서 함정이 됩니다)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 20초정도면 쉽게 답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신 수험생의 경우 질문에 대한 준비가 덜된 관계로 각 문항 당 1분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즉, 3문제를 1분에 푸는 수험생과 한문제를 1분에 푸는 수험생은 절대 같을 수 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험장에 들어가신 수험생들은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7급 세무직의 경우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실전에서는 어떤 문제를 안다 혹은 모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시간내에 풀 수 없는 문제는 모르는 문제와 똑같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시간내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계속푼다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유발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출제예상문제와 각 문제에 담겨있는 출제자의 함정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할 때 , 문제풀이 속도는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셋째, 준최적화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됩니다. 7급 세무직 수험생 여러분들은 준최적화라는 용어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즉, 부분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적화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일부 불합격하신 수험생들 중에는 최적화대신 준최적화를 선택해서 자신의 실력이 합격권에 있음에도 불합격하는 불행을 자초합니다. 이러한 준최적화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전 문제풀이시 쉬운것부터 풀어야 하는데, 앞에서부터 최대한 완벽하게 풀려교 합니다. 이는 비단 회계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7개 과목에 대해서 개별과목의 최적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각 과목의 최고득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7과목 모두에 대해 완벽히 점수화 할 마음으로 문제를 풀 경우 자칫 일부 한두 과목에서 시간부족으로 과락내지는 쉬운 문제임에도 풀지 못하고 찍어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합니다. 공무원시험은 총점으로 합격을 하는 것이지 세무직이라고 해서 절대 회계학과 세법 고득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준최적화의 다른 하나는 평상시 공부할 때의 자세입니다. 7개 과목은 절대 적은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본 많은 수험생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전에 가보니 역시 어려운 내용은 시간이 부족해서 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공부하면서 지엽적인 내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습니다. 7급 회계학의 경우 17개는 15분 내에 무난히 맞출수 있습니다. 그 전략이란 바로 16 +1입니다. 여기서 16이란 본인이 알고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 은 모르는 4문제를 찍었을 때 맞출 확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문항 정도는 버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7개 과목 전체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 공부 범위가 축소되어야 문제풀이 속도를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모든 시험은 일부 과목의 강점에 의해서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에 약점이 없기 때문에 합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경제학

시간에 배운 한계생산물체감의 법칙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공부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공부하고 싶어도 참아내고 본인이 제일 취약한 과목을 우선적으로 공부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불합격 수험생들 중에는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기위해 평상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결정적으로 시험장에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 문제를 푸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부디 “ 난 어떤 과목에도 약점이 없고, 제일 쉬운 문제부터 푼다 ” 라는 수험생으로서의 기본 정신을 잊지 말고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수험생여러분들의 최단기간 합격을 기원합니다.

기출문제 해설 (2008년 7급 봉 책형)

1. 정답 4번

2007년 12월 31일 누락된 분개

급여 *** / 미지급급여 ***   이므로 비용과 부채가 누락되었다.

따라서 자산은 영향이 없고 부채는 과소계상되며, 자본은 과대된다.

2. 정답 3번
기말재고자산은 자동조정적 오류다. 따라서 2006년 오류는 2007년이 되면 전부 상쇄된다. 그러므로 2007년 이익잉여금은 영향이 없다.

3. 정답 1번
수정전 당기순이익에서 수정후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문제로서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증가이므로 당기순이익을 + 시키고 , 부채가 증가하면 - 하면 쉽게 답을 구한다.
545,000 -12,000 -22,000 + 15,000 + 8,000 = 534,000

4.정답 2번
토지의 취득원가로서 매입가액 + 부대비용으로 풀면된다. 이때 폐기물처분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500,000 + 20,000 +30,000 +50,000 - 10,000 +10,000 +20,000 = 620,000

5. 정답 4번
복구충당부채로서 미래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구축물을 증가시키면서 충당부채를 증가시킨다. 실전에서는 항상 정답이 아닌 것들을 먼저 지우자. 즉 대변이 복구비용이 되면 안되고 충당부채가 되어야 하므로 1번과 3번은 절대 답이 아니다. 또한 미래복구비용의 현재가치이므로 30,000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6. 4번
사채에 관한 기본내용으로서 다음처럼 쉽게 생각하자.

빌린돈 이상으로 갚는다면 전부 이자비용일 것이므로

갚은돈 (사채 원금 + 현금이자) : 1,240,000

- 빌린돈 (사채발행가액) : 903,940

= 3년간 총이자비용 : 336,060

7. 정답 1번

틀린부분을 고쳐보면

2번지문 : 할인발행된 경우 이자비용은 매기 증가한다.

3번지문 : 사채발행비가 있다면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높다.

4번지문 : 할증발행된 경우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기 감소한다.

8. 정답 2번

연수합계법에 의해서 2005년 과 2006년 감가상각비를 구해보면 1,500,000과 1,200,000이 된다. 따라서 2007년 1월 1일 장부가액을 구해보면 4,500,000 - 2,700,000 = 1,800,000 이 된다. 여기에 자본적지출 1,200,000 을 더하면 3,000,000 이 새로운 취득원가가 되고 증가된 내용연수에 따라 5년을 적용하여 연수합계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1,000,000 이 된다.

9. 정답 3번

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항상 취득원가와 기말 공정가액과의 차이가 된다. 참고로 단기매매증권이라면 전기말 장부가액과 당기말 장부가액의 차이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이 되고 이는 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된다. 그러므로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10,000 이 되지만 매도가능증권은 평가손실로 46,000 이 인식된다.

10. 정답 4번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분류변경이 가능하며 이때 발생된 평가차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11. 정답 1번

매출채권계정을 그려보면

매출채권

기초	1,000,000	현금회수	3,480,000
		대손발생	?
외상매출	4,000,000	기말	1,500,000

12. 정답 2번
발생주의 순이익에서 현금주의 순이익을 구하는 문제로서 자산증가는 - , 부채증가는 +

발생주의 순이익	?
매출채권감소	50,000
재고자산증가	(50,000)
매입채무증가	20,000
미지급비용증가	30,000
선수금증가	20,000
미수수익감소	50,000
감가상각비	50,000
현금주의순이익	200,000

13. 정답 4번
은행계정조정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회사측	은행측
수정전잔액	82,000	90,000
	10,000	20,000
	(20,000)	(48,000)
	30,000	
	(40,000)	
수정후잔액	62,000	62,000

14. 3번
틀린부분을 쉬운 순서대로 구해보면,
주당순이익은 자기주식이 있으므로 10보다 크다
주가이익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누는데, 주가가 2000이고 주당순이익이 10보다 크므로 주가이익비율은 25보다 작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는데, 10%이므로 총자산은 1,000,000이다.

15. 1번

상품권회수와 관계된 분개를 찾는 문제인데 항상 분개문제는 답이 아닌것을 우선지워야 한다. 일단, 3번과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상품권선수금과 상품권할인액은 절대 같은쪽에 위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답은 1번과 2번중 하나인데, 키포인트는 상품권할인액과 상품권선수금사이의 비율이다. 문제 첫줄에 상품권을 10% 할인가격으로 발행했으니 상품권할인액은 선수금의 10%가 되어야한다. 따라서 답은 어쩔 수 없이 1번이 된다.

16. 정답 4번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17. 정답 4번
개발비 상각액이 제조활동과 관련된 경우 제조원가처리한다.

18. 정답 2번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산정시 무상증자는 기초발행을 간주하며, 주의할 점은 유상증자에 대한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일을 발행일로 간주한다. 따라서 5월1일 무상증자시 1,000주는 기초발행을 나머지 100주는 4월1일을 발행일로 간주한다.

1월 1일	4월 1일 유상증자	5월 1일	7월 1일	합 계
10,000				10,000
	1,000			750
		1,000		1000
		100		75
			1210	605
				12,430

19. 2번
보장수익률이란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현금유출액(원금 +이자 +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말한다.
보장수익률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액면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이 10%이고 표면금리 6%라면, 매년 6% 이자를 받고 만기때까지 회사주가가 낮아서 전환사채가 전환되지 못한다면, 나머지 4%를 받는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보장수익률과 액면이자율의 차이가 상환할증금을 구성한다.

20. 정답 4번

이런 문제는 항상 등식을 세울수 있어야 한다.
신기계 = 구기계 +270,000
이때 물어보는 질문은 2가지이다. 첫째, 신기계취득원가 둘째, 구기계처분손익이다. 이 문제는 구기계처분손익이므로 구기계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다. 질문에서 구기계의 공정가치는 630,000이므로 공정가치가 처분가액이 되고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860,000과 감가상가누계액 730,000의 차이인 130,000 이 된다. 따라서 처분손익은 500,000 이익이 된다.